



결핍이 불행처럼 느껴질 때

When Shortcomings Feel Like Unhappiness

사무엘상 1장 1-18절

1.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2.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3.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4.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5.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므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7.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8.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9.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와 전 문설주 결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10.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1.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12.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13.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14.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15.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16.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17.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18.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1.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의 종결을 알리고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읽고, 그리고 이번 시리즈 주제가 '왕의 왕 King of Kings'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서로 이야기해봅시다.
2.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지는 이야기는 '한 여인의 결핍'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결핍'과 '불행', 이 두 가지 단어의 상관관계를 생각해보고 나눠봅시다.
3. 한나는 결핍이 있었지만, 좋은 일들도(남편의 사랑, 남편의 경제력 등)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핍이 한나에게 괴로움의 이유가 된 요인은 무엇인가요? (7절) 한나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에도 결핍이 불행이 되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과연 그것이 마땅한 것인지 생각해봅시다.
4. 한나는 결핍이 주변 사람으로 인하여 불행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했나요? (10절) 그리고 설교를 듣고 다음 문장에 들어가는 단어가 무엇이었던지 생각해보고, 서로의 생각을 나눠봅시다. "기도는 ○○이다"
5. 왜 하나님이 한나에게 '의도적인 결핍'을 허락하셨을까요(5절)? 결핍이 불행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실까요? '기도'와 '관계'라는 두 단어를 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봅시다.
6. 한나는 오래 기도했습니다. 오래 기도했다는 것의 참 의미는 무엇일까요? (12절)
7. 마침 기도하는 자리에 섰을 때, 낙심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이를 놓고 미리 '귀뜸' 해주신 말씀(눅18:1)을 읽어보고, 우리가 낙심을 만날 때 해야 할 일을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다음 말의 빈칸을 채워봅시다.
"기도와 응답 사이에 큰 강이 있고, 그 강에 유일한 ○○○의 이름이 '낙심'이다."

